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3 주일
제28권 3호 (가해) 2007.12.16

[묵상]



이 잔을

이 잔은 허기와 갈증으로 깊어진 잔입니다.

이 잔은 욕심과 욕망으로 부푼 잔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이 잔을

이제는 당신의 은총으로 풍요롭게 채우소서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면담회 (장래지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허동수 루스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주 일 낮 미사	(연)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은완 야고보 정선결 모니카, 김중돈 스테파노 주막레 마리아, 최봉관 요셉
	(생)이종민 요셉, 박진숙 엘리사벳과 홍정순 세실리아 토런스 남4반 가족들,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오세원 아타나시오 가정, 최귀환 펠릭스, 김하늘 레아 김충섭 마틴과 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임종택 베르나르도, 임종택의 자녀들 안상훈 라파엘과 은지 마리아 부부, 김미아 베로니카 정아그네스와 비오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35,1-6나.10

화답송 ◎주여 오소서 오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례성가 60, 대림 제3 주일 가해>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주님은 묵인 이를
 해방시키시고, 주님은 사로잡힌 이를
 풀어주시도다.◎
 ○주님은 소경의 눈을 열려주시며, 주님은 억눌린
 이 일으켜 주시며, 주님은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도다. 주님은 나그네를 지켜주시도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길러 주시나, 악한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야훼님 영원히 왕
 하시리니, 시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제 2독서 야고보서 (St. James) 5,7-10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도다.◎

복 음 마태오 (St. Matthew) 11,2-11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23	130
봉헌	368	264,261
성체	376	301,302
파견	125	123

8.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다.(계속)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
 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기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
 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
 나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려는 기록이다. 창세
 기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위와 같은 신
 앙의 진리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우주 만
 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라는 믿음이다. 아
 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고(지혜 11,20 참조), 그
 질서를 바탕으로 온갖 천체와 동식물을 제자리에 채우심으로
 써 조화를 이루셨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인간이 장차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마련하신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며, 세상의 관
 리자로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조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선한 것’이고, 당신 사랑으로
 만드시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 된다.’는 하느님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주신다.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인간의 행복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설화적인 서술 방법을 사용
 하여 하느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창세 2,7)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창조에 쓰인 재료나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
 라 인간의 기원은 하느님께 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시 흙으
 로 돌아갈 유한(有限)한 존재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거룩한 숨
 결로 생명을 부여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인
 간 생명의 주권은 하느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덴동산 이야기는 하느님과 사람의 친근함을 말해 주고 있
 다. 사람은 그 곳에서 “동산을 일구고 돌보며”(창세 2,15) 사는
 데, 그 노동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또한 하느님께서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서 삶의 동반자가 될 여자를 만들
 어 주시고 서로 짝을 이루게 하셨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
 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다
 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창조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연
 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된다.

◆(계속 - CBCK 제공)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얼마 전 칠순을 훨씬 넘긴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선뜻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하루종일 폐지를 모아 팔아도 수천 원이 고작, 그러나 틈틈이 모은 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할머니들은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폐품을 수집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졌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 “공부를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되어 나와 같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이 살아 있는 천사처럼 느껴진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남을 돕는 자선이야말로 인간다움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덕목이 아닐까.

한국 천주교회는 1984년부터 해마다 대림 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고 있다. 교회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마태 11,3)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귀는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

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마태 11,4-5).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에 대한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억압받고 굶주린 이들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다. 또한 환자들을 치유하고 악마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 주셨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의 재림은 희망의 메시지이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진실과 정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인식 행위이지만 마음이 함께 따라야 바르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신의 생각대로 사물을 본다.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앞에 있어도 올바르게 보지 못할 때도 많다.

우리는 지금 오시기로 되어 있는 구세주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가? 또한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자선과 나눔을 베풀고 있는가? 자선이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참된 연민의 정에서 비롯된다.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웃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며, 귀머거리와 다름없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송주영 크레센치아	정미영 미카엘라	김정웅 요한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강정현 시몬	유철희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황지영 안젤라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제물봉헌자			P.V. 4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지난 주간 합계: 2,511단 ☞ 총 합계: 228,617단

이제 세번째 대림초를 밝혔습니다. 이 대림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자선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윌에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는 분은 12월 중에 마감하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열성껏 준비한 주일학교 성탄
제가 15일(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클래스는 오늘 주일
종강해서 한달 동안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 12월21(금) 오전 9시30분~오후 1시, 강당

성전헌금	구본엽	김광자	김교복	김기정	김영미	김옥보
	김원호	김정희	김종환	김준호	김철수	김현숙
	민봉식	민찬기	박광자	박선희	박태준	반비오
	변세연	송초창	안동훈	안연숙	엄세종	오영섭
	우영주	육재민	이귀분	이민상	이상규	이석호
	이영희	이용무	이현주	임한나	장영우	정규숙
	정동호	정연영	조경림	조준채	조화숙	최미열
	최의수	최현찬	하정화	홍석철		
	한길선례	김아가비도				
	안나희 동전모으기 \$640			합계 : \$5,325		

감사허금 : 각지혜 소꿉동체 특별허금 : 故 김준돈 & 김선영

◆ 백삼위 골프회 12월 정기 토너먼트

- 12월22일(토), 티오프 오전 9시30분
- 리오 혼도 골프코스(다우니) ☎ 569-3940 최기남 회장
- 크리스 리 형제께서 상품 5점을 기증했습니다.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결성 앞두고 회원 초대

- 마라톤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능력을 높여주는 종합운동입니다. 30명 회원의 동호회를 결성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앞으로 정식 트레이너를 초빙하여 LA 마라톤 등 여러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의 ; ☎ 310-740-1502 김철민 요한

◆ 가톨릭 신자용 상분 콜링(전화)카드 판매

- 가격 : \$20, 유효기간과 연결 수수료가 없는 경제적인 전화카드입니다. 분당 2.7센트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과 통화 가능합니다. 수익금은 각 성당과 가톨릭방송·가톨릭신문사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 사무실에 비치 중 ☎ 213-385-5564 김안나

◆ 친교장 테이블이 깨끗해졌습니다.

최근 한창주 요아킴 & 경숙 안나 가족이 친교장 테이블을 비누와 왁스로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매주일 미사 후 점심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곳의 테이블을 청결하게 사용 하는 것도 일종의 봉사입니다. 비록 청소는 직접하지 않더라도...

♫ 각 단체 송년모임 ♫

- 원서부부회 : 21일(금) 오후 6시30분, 성당 강당
☎ 213-446-8234 김병록 요셉 회장
- 배론청년회 배론의 밤 : 22일(토) 오후 9시, 성당 강당
☎ 310-701-8937 권승호 안토니오
- 사목상임위원회 : 23일(주일) 오후, 사제관
- 요셉회 : 23일 오후 1시, 송림장
☎ 310-995-5226(이근테 세르지오 총무)
- 대건회 : 25일(화) 오후 3시, Toyo Sushi
441 W. Knox St. #300, Torrance(월마트물내)
☎ 310-533-8500 정하상 바오로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 16일 : 토런스 남 2반 (갈비우거지국 \$3)
- 12월 23일 : P.V. 1반 (육개장 \$3)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12/7(금) 오후 7시 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12/14(금) 오후 7시30분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2/7(금)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12/15(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12/4(화)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12/15(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이석천 가브리엘 326-5867 12/14(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12/14(금) 오후 6시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325-6810 12/15(토) 오후 5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12/29(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권오상 바오로 257-8416 12/7(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베스 326-2283	최기남 야고보 891-1527 12/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12/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12/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이영석 크리스토폴 377-7063 12/14(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의 갈등

대림환의 세 번째 촛불이 환히 타올랐다. 대림환에 꽂혀있는 분홍색 초에 불을 붙인 것이다. 대림환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개의 초 가운데 두 개는 보라색, 하나는 분홍색, 나머지 하나는 흰색이다. 오늘 대림 제3주일에 기쁨을 상징하는 분홍색 초를 켜 이유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대림 제3주일을 ‘가우데떼’(Gaudete, 기뻐하여라!) 주일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 명칭은 오늘 미사의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필리 4,4-5 참조)라는 입당송에서 따온 것으로서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자는 전례적 의도와 배려에서 기인한다. 사제는 오늘 자주색 제의 대신에 장미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가우데떼’의 전례적 의미를 살릴 수도 있다.

오늘 복음은 기뻐하라는 ‘가우데떼 주일’의 전례적 의미와는 달리 다소 무겁게 시작한다. 시커먼 벽에 촌촌한 창살과 어둡고 칙칙한 공간, 사해 동쪽 마케루스 요새의 감옥에 세례자 요한이 갇혀있다.(플라비우스, 유대고사 18,116-119 참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광야에 쏟아 부은 사람,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태어난 사람, 세례자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다.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고, 하늘나라가 도래한 표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감옥은 광야에서만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다. 감옥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며, 질문을 던지고 의문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로서 그 길을 닦고 밝히며, 회개와 설교와 세례를 베풀던 일이 다 무엇인가? 감옥이라는 거동의 제한을 받는 공간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시켜 예수께 반신반의(半信半疑)의 질문을 던진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3절) 우리는 선구자의 의심과 의문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또한 삶의 기로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또 선택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문을 던지며 의심을 품는가? 이것일까, 아니면 저것일까 하는 갈등 말이다.

세례자 요한만큼 그 제자들도 의심과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3절) 이 질문은 우선 세례자 요한의 질문이었고, 동시에 그 제자들의 질문이며,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질문이며, 오늘날 현대인의 질문이기도 하다. 질문이 이랬다면 대답은 통상 “그렇다. 맞다.” 혹은 “아니다. 틀렸다.”라는 둘 중의 하나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모양이 아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4절)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에게서 본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마귀 들린 사람들이 멀쩡해지고 소경이 보고 병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이사 29,18; 36,5-6; 61,1 참조) 예수님의 참된 대답은 곧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6절)는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본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각자 자신의 몫이다. 도래한 메시아에 대한 불신, 혹은 믿음은 강요되거나 한 마디의 대답 속에 들어 있지 않다. 각자 스스로가 결단해야 함이다.

한국교회는 1984년부터 오늘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정하여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가진 바를 나눔으로써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한 이로써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촉구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8)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에 부합한 삶을 보이자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전 생애와 마지막 목숨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가난한 이를 위해 서로 나누자는 자선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운 곳이 많다. 가난과 빈곤은 세상 끝까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이유가 다 다르다. 손바닥만한 밥그릇 채우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밥술만한 밥그릇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법과 편법은 용납될 수 없다. 속임수와 부정은 가난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서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죄악이다.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제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가진 것을 나누자. 없다면 빈손으로라도 약속을 청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따뜻한 삶의 온정과 격려를 나누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상대 마르코 신부